

237 도전을 위한 갱신과 7흐름

-복음으로 여는 데살로니가후서-

잠언9:8, 데살로니가후서3:6-12

정윤돈 목사님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어리석어서 사탄에게 속아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가지 고통 속에서 살아가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누리게 하시고, 땅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무너지가는 많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우리에게 천명, 사명, 소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주시고, 평생 현장과 모든 가정을 살리고 후대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이 땅에 질병과 땅까지 저주를 받아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먼저 수칙을 지키게 하시고 성도들과 나라와 민족이 이 위기 속에서 잘 이겨내고 오히려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교회가 237 세계복음화를 위해 끝까지 쓰임받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였고, 갱신해야 할 바른 복음과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끝까지 말씀을 주고 있다.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양육대상자들이 237 과 4차 산업시대에 필요한 제자가 될 때까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전도자의 삶으로 그들을 양육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 먼저 전도의 5기초에 대한 핵심 키를 알아야 한다.

(1) 다락방 사역의 키는 복음과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다. 다락방 전도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 사람에게 맞는 그리스도 복음으로 답을 주어 영적으로 치료를 해 주는 것이다.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없다. 이것을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알려주는 것이다.

(2) 팀사역의 키는 영적인 상담을 말해주는 것이다. 개인, 가정, 종교, 영적인 상황, 어려움, 성격이 다 다르다. 이것을 수용하고 위로하면서 복음으로 바른 답을 주어야 한다.

(3) 미션홀 사역의 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삶을 치유해주는 것이다. 영접하고 헤어지는 것과 같이 사는 것은 다르다. 가정의 모든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것이 가정미션홀이라면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전도운동을 하는 것이 제자들의 모임, 사명자다락방을 미션홀이라고 할 수 있겠다.

(4) 전문사역의 키는 전문인들이 팀이 되어 지속적으로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전도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 안에 전문 교회가 있어야 한다. 전문인들이 그 분야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다.

(5) 지교회 사역의 키는 지속적으로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전도제자로 키우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강단메시지를 붙잡고 제자가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의 문제점을 치유하여 세계복음화에 기여하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두 번째로 강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다.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후서이다. 첫 번째로 권면을 해도 실천되지 않으니 강하게 다시 권면의 말씀을 주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5기초 전도사역을 통하여 짧은 시간에 데살로니가교회를 세웠다.

1.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문제점과 사도 바울이 권한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전도자의 삶이다.

(1)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점들이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는 부분도 많았지만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재림을 빌미로 직장생활이나 일을 전혀 하지 않는 성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세 번째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직접 권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 이러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말씀들을 주셨다. 데살로니가전서 5 장 8 절에서 22 절에서는 19 가지 전도자의 삶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 ① 5 장 8 절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을 붙이면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예비되어 있어야 한다. ②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③ 5 장 11 절에 ‘피차 권면하고’ ④ ‘서로 덕을 세우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서로 도와주라’고 말하고 있다. ⑤ 5 장 12 절에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다스리는 자를 알고 가장 귀히 여기라’ ⑥ 5 장 13 절에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⑦ 5 장 14 절에 ‘게으른 자를 권계하며’ ⑧ ‘마음이 악한 자를 격려하고’ ⑨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 주며’ ⑩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⑪ 5 장 15 절에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⑫ ‘항상 선을 따르라’ ⑬ 5 장 16 절 ‘항상 기뻐하라’ ⑭ 5 장 17 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⑮ 5 장 18 절 ‘범사에 감사하라’ ⑯ 5 장 19 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⑰ 5 장 20 절 ‘예언을 멸시치 말고’ 공동번역에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하는 말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한다. ⑱ 5 장 21 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⑲ 5 장 22 절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고 계신다. 이것은 완전 사랑, 완전 복음에 도전하라는 말씀인 것이다.

(2) 주님의 재림과 우리의 휴거에 대하여 조금하거나 미혹되지 말라고 권하고 있다. 데살로니가후서 2 장 1 절에서 3 절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휴거)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성경)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데살로니가 성도들 뿐만 아니라 현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주님의 재림에 관심이 없는 것도 깨어 있는 자세가 아니고 임박한 종말론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도 틀린 자세이다. 사도행전 1장에서 부활 후 40 일 만에 주님이 승천하실 때 말씀하시기를 재림의 때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사도행전 1 장 7 절을 보겠다. ‘이르시 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순간까지 나의 업에 충실하면 된다. 마태복음 24 장 40 절에서 41 절 말씀을 보겠다. ‘그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오늘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성경적인 흐름이다.

(3)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권하고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4 장 11 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데살로니가후서 3 장 10 절에서 15 절에서는 더욱 강경하게 책망하고 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 같이 권면하라'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과 램넌트와 후대들이 되기를 축원드린다. 이러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힘과 깊은 호흡과 기도와 건강 관리도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당연, 필연, 절대적인 지혜이다.

2. 두 번째로, 237 시대와 4 차, 5 차 산업시대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할 7 가지 흐름, 영어로는 7 main stream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언약적인 7 가지 흐름을 의미한다.

(1) 첫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과 나의 신분과 권세를 이해하는 것이다. 성삼위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는 주어질 것이다. 이것을 사실적으로 누리며 살 때 성공적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

(2) 하나님 자녀의 '10 가지 성공 비밀'이다. 성경 속 모델로는 요셉과 다윗이 있다. ① 독립(자립)이다. 성경의 램넌트 7 명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도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자립하였다. 그러자 세상적으로도 성공하였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란다. ② 영적사실이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 감옥에 갇혔을 때, 사실과 진실을 넘어서 영적사실을 보았다. ③ 역발상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문제와 사건 앞에서 반대편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여유와 지혜가 있어야 한다. ④ 시너지이다. 복음가진 요셉을 통해 전 세계가 다 살아나는 시너지가 이루어졌다. ⑤ 위기이다. 전도자와 하나님의 자녀들은 위기를 최고의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집중하여 하나님의 절대계 획을 볼 수 있어야 한다. ⑥ 무경쟁이다. 다윗은 사울과 싸우지 않고 승리하였다. ⑦ 재창조이다. 솔로몬은 성막이라는 영적인 시스템을 성전이라는 최고의 예술작품으로 재창조하였다. ⑧ 서밋이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서밋의 자리에 여러분과 후대를 세우실 것이다. 영적서밋은 지금 당장도 될 수 있다. 주께 내 인생을 다 맡기면 된다. ⑨ 사막이다. 하나님이 자녀들은 사막, 황무지와 같은 절대불가능한 Nobody 의 현장을 절대가능한 Everybody 의 현장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다 살리는 것이다. ⑩ 절대계획이다. 다윗과 같은 램넌트들의 성공의 비결은 무엇이든 하나님의 절대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했던 것이다. 다윗의 질문과 답이 기록된 내용이 시편이다.

(3) 신앙의 발판 10가지이다. ① 하나님의 절대주권은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심이다. ②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③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 ④ 하나님의 보증을 성경말씀에 모든 증거가 있다. ⑤ 성도는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⑥ 진정한 선교지는 나의 현장과 업이다. 이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다. ⑦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⑧ 하나님의 섭리이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시한부 인생이다. ⑨ 우리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존재한다. ⑩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의 상급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4) 네 번째 언약적 흐름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5 가지 확신'이다.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이다.

(5) 다섯 번째 언약적 흐름은 '9 가지 배려'이다. 이것은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당연, 필연, 절대적인 지혜이다. ① 높이, 깊이, 넓이이다. 이것은 참된 지식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 이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분야의 최고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전도할 때도 깊이 있게, 전문성 있게 해야 한다. ② 위, 아래, 옆이다. 이것을 잘할 때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 ③ 과거, 현재, 미래이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바른 판단과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다. 그게 역사이다.

(6) 여섯 번째 흐름은 미리 보는 62 가지 전도시스템과 전도자의 삶이다. 이것은 미리 보고 누리는 평생의 응답이고 걸어가야 할 언약의 여정이다.

(7) 일곱 번째 흐름은 교회의 축복을 이해하는 것이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며,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다. 성도는 교회의 지체이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드러지는 예배와 기도는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시스템이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파장은 살리는 파장이다. 그래서 영적 치유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 또한 교회는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는 대로의 시작이고 천국을 향하는 플랫폼이며 터미널이다. 교회는 흑암, 저주와 재앙을 막는 창조의 빛을 발하는 영적인 태양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참된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있는 지역과 나라에는 재앙과 저주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237 나라에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결론으로, 오늘도 데살로니가후서와 성도의 7 가지 언약적 흐름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CVDIP 를 발견하고자 한다.

1. Covenant, 언약이다. 데살로니가후서를 통하여 붙잡을 언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주님의 재림 때 휴거에 참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때와 시간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빛이요 향기요 편지가 되시기를 축원드린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의 비전은 237 나라 모든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고 바른 복음과 신학과 복음적인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다.

3. Dream, 꿈이다. 미래는 주께 맡기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현장과 일과 공부를 위해 24 시간 집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4. Image, 이미지이다.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확실해 보일 때까지 집중하여 기도하며 의논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교회의 문제를 보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집중하여 기도하며 메시지를 주었다.

5. Practice, 실천이다. 이번 한 주간은 나의 잘못된 신앙관을 찾아보시기 바란다. 인정만 해도 거듭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임박한 종말론이나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바른 복음의 말씀과 바른 삶에 대해 답을 주시기를 바란다.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과 7 가지 언약적인 메인 스트림을 통해서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린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약한 저희를 불러주시사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삼아주시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세상의 오만가지 문제 속에서 불신자의 6 가지상태, 12 가지 문제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의 몸된 참된 복음만 전하는 교회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복음의 빛진 자로써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에게 영접메시지부터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이 언약, 교훈, 전도자의 삶을 전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